

비평, 반성,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학생의 자기목소리 개발

김 영 천 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답을 찾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Paulo Freire)”

1. 서 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우리 나라에서의 전통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강사위주의 설명식 수업, 1990~1995년까지의 미국의 대학원 수업, 그리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수행된 미국 초·중등학교의 수업관찰 연구경험은 필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가?”, “대학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귀중한 교육적 기회였다. Schutz의 이방인(stranger)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처럼 낯선 사람으로서 참여하였던 미국에서의 대학원 수업 수강과 미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현장연구는 교육학 전공자인 필자로 하여금 “어떤 것이 좋은 수업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사색은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강좌를 비롯하

여 『교육평가』, 『교육과정이론』,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등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모든 강좌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첫째, 필자의 모든 수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업원리에 대하여 소개하고 둘째, 학부 2학년에게 강의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업방법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업을 지도하는 여섯 가지 원리

필자는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게 될 때 또는 기대하지 않은 수업을 강의하게 될 때 수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지침으로서 여섯 가지의 수업원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수업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철학과 신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목표, 학습자료의 선정, 수업방법, 과제, 그리고 학습자 평가 등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사인 필자에게는 수업을 지도하는 안내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노력해야만이 성공적인 학생으로서 A학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해시켜 주는 평

가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침이 필자의 수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여섯 가지 수업원리의 적용이 학생으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습, 공부, 연구,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대학에서의 학습과 공부를 보다 건설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해석으로부터 필자의 수업을 받은 학생이 자기조절 학습능력, 높은 학습동기, 그리고 지적 지구력(intellectual persistence)과 연구에 대한 강인한 열정을 갖춘 학습자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섯 가지의 수업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필자의 수업을 지도하는 첫 번째 원리는 수업은 강사에 의한 지식전달과 설명보다는 대화와 토론이 지식획득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학생의 학습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대화와 토론은 강사와 학생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강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비판단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실수와 다양성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 주는 상호작용활동을 의미한다.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직접수업(directed instruction)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수업에서는 상당한 양의 수업시간을 대화, 토론, 논쟁,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발표와 비평으로 할애하고 있다.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위하여 강사가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학기 동안 필자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은 매주마다 수업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쟁하거나 아니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매주 수업을 위하여 미리 읽어야 할 학습자료, 언급할 내용이나 주제에 대하여 준비하거나 기록하도록 요구된다. 필자의 역할은 대화와 토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를 연출하며(자리배치를 통한 유연한 교실공간의 활용, 유머의 사용, 발산적 사고의 수용) 상황에 필요한 심화질

문과 탐구문제를 제시해 주는 데 있다.

필자의 관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화와 토론방식의 사용은 학생의 수업참여와 학습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 첫째, 대학에서의 공부를 강사가 제공해 주는 지식을 이해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위하여 암기해야 하는 기계적인 학습으로서 이해하였던 학생들에게, 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수용과 재인이 아니라 토론과 비평을 통한 지식의 탐구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지식을 절대적이고 숭고한 것으로만 숭배하기 보다는 비평하고 평가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낸다. 즉, 자신을 지식의 생산자 또는 비평가로서 새롭게 지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히 강사의 직접적인 설명 없이 학생간에 이루어진 토론과 탐구를 통하여 교과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론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토론결과를 생산하였을 때 학생들은 학습이란 더 이상 암기와 기록으로 이루어진 단순활동이 아니라 탐구와 비평으로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인 활동이라는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대화와 토론은 자기표현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학습활동으로 작용한다. 일반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공식적 교육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수업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그리고 설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한 학기 동안 계속되는 대화와 토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화와 의사표현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효과적인 표현방법과 문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 일비가츠키가 언급한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명시적이고 논리적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는 경험은 학생의 의사소통방식을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셋째, 대화와 토론은 한국의 교실수업의 '대표적' 특성이자 침묵의 문화(culture of silence)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강사중심의 수업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이었던 학습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진취적으로 강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탐구하게 된다. 강사중심 수업문화에서 나타나는 학습분위기(방관적인 수업태도, 약한 공감대, 평등한 대화와 상호작용의 결여)가 사라지면서 교실수업은 대화가 교류되고 다양한 관점이 공유되는 탐구의 공간으로 변화된다.

두 번째 원리는 학습결과로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가르친 내용을 학생이 얼마나 암기하였는가를 확인하기 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학생 개인의 생활세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켰는가이다. 학생이 교과내용을(교육학지식, 교육학이론) 어떻게 개인적 의미로 변환시켰는가를 알아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개인적 의미가 수업의 중요한 목표로서 발전하게 된 이유는 교육학이론은 사회과학영역에 속하는 연구분야로서 학생에게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것으로서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대신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학 공부의 의미는 그러한 이론을 개인적인 의미로서 발전시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실제 생활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자기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의 수업에서 학생은 이론에 대한 재진술이나 설명보다는 그러한 이론의 습득과 이해가 학생의 세계관과 인간이해에 어떻게 실제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강사에게 입증해 주어야 한다. 그 예로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사회과학이론(지능이론, 학습이론, 진보주의,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이론, 재생산이론,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남성학)들을 암기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이론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세계관의 해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학생에게 주는 개인적인 의미와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글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원리는 '고등사고기술의 강조'이다. 고등사고기술의 강조는 수업의 목표가 지식의 단순한 재인이나 이해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고차원적인 탐구기술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고등사고기술의 연마를 필자의 수업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한 이유는 1970~1980년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을 지배하였던 경제개발을 위한 교육모델이 21세기의 생존경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길러주는 데 더 이상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창의성, 비평력, 종합력, 문제해결력, 분석력과 같은 고등사고기술이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중요한 인간 생존능력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필자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고등사고기술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수업활동과 과제를 제시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수업중에 학생에게 제시되는 과제는 고등사고기술을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활동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교육과정설계이론의 장점,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 미래사회의 변화와 그러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예측하기
- 교육현상을 다른 개념이나 은유로서 비교하여 설명하기
-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를 세분화시키기(종류를 열거하기)
- 학생의 관점을 언어로 진술하기 또는 그림으로 개념화시키기
- 대안학교의 철학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모형 설계하기

둘째, 학생이 글을 쓸 때, 감상문을 쓸 때 또는 보고서를 쓸 때, 단순한 지식의 나열보다는 자기관점과 반성, 그리고 분석과 종합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문헌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나 표현을 이용하도록 요청한다.

- ~과 비교하였을 때
- 흥미로운 부분은 ~이다
- 이것의 논리적인 결과는 ~이 될 것처럼 보인다.
- ~과 관련되는 생각은~
- ~을 가정한다면
- ~라고 예측한다.
-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 이것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 ~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 나는 ~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 나는 ~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 내가 하고 싶은 한가지 비평은 ~이다
- 나는 ~을 결정할 수 없다
- ~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다.

네 번째 원리는 '글쓰기를 통한 비평과 탐구능력의 증진이다. 이 원리는 언어의 연마가 사고와 탐구능력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학생에게 글을 계속적으로 쓰게 함으로써 학생의 비평능력과 분석력, 그리고 자기관점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필자의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소규모보고서, 중간보고서, 그리고 기말과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글쓰기가 필자의 수업의 중요한 원리로서 강조된 이유는 우리의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글이라는 매체로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는 필자의 경험적 판단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글을 많이 써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숨겨져 있었던 글쓰기의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둘

째, 글이란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이해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APA 사회과학 논문작성법, 모범적인 석사 논문, 장르의 혼합에 근거한 새로운 인문학적 글쓰기, 페미니스트적 반성적 글쓰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쓴 글쓰기의 예를 가지고서 논의한다. 각 학생의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특징, 전체 학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 써진 글쓰기의 예를 제시해 준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중심적인(life-centered) 교육내용이 학습자료로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미있고 실제적이며 학생의 삶과 관련이 깊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무겁고 어려운 이론서적을 사용하는 대신에 학생의 생활에 관련되어 온 사건과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이렇게 흥미있는 생활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이 가르칠 주제에 대하여 흥미를 보이고 난 다음에 교과에서 의도했던 목표(내용의 숙달)를 학생에게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의 수업에서는 교과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필자가 직접 제작한 『수업을 위한 자료모음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페미니즘과 교육과정의 주제에서는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한국 영화가 사용되며, 인종차별과 교육과정에서는 영화, 『Power of One』, 동남아시아 노동자의 서울생활을 다룬 수기가 읽기자료로서 제공된다. 전자지식과 학교교육 과정의 주제에서는 학생이 직접 흥미로운 Internet site를 방문하여 자료를 출력하여 수업에 가져온 다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전자학습(electronic learning)이 전통적인 학습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의하게 한다.

여섯 번째 수업지도의 원리는 지필검사 대신에 대안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지필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반성적 글쓰기, 발표, 집단토

론, 독후감 글쓰기, 학습일지 쓰기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필자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달성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수업목표의 확인이 전통적인 지필검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생이 필자의 수업목표와 수업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학생의 이해와 노력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수행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3. 『교육과정과 수업』에서의 수업방법

지금까지 필자의 모든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수업원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진주교육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업방법과 학습자평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과정과



수업』은 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에게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를 소개시키는 개론적인 수업에 해당되며 필수과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체계가 심리학, 철학, 사회학, 경영학, 인지심리학, 미래학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학 과목에 비해 상당한 공부를 요구하는 힘든 과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개발과 인간학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수지식으로서 상당한 이론과 사회과학지식을 섭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교육학 전공영역의 수업 중에서는 가장 방대하면서, 핵심적이고, 비중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무거운 이론적인 강좌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수 때문에 이 과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자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학부 2학년 학생에게 어렵고 이론적인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규명하는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업방법을 소개하며 그 다음으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의 지면상 네 가지 수업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첫 번째 수업방법으로서 집단토론과 발표가 있다. 집단토론과 발표는 학생 4~5명이 한 조가 되어 수업중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수업방법을 말한다. 집단토론의 절차는 학생이 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조별 구성원이 항상 동일하지 않도록 매주마다 구성원이 다르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집단이 만들어지면 토론을 유도할 리더가 선발된다.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번은 토론의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리더는 토론을 유도하며 조의 구성원이 토론에 진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부여하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학

생을 고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토론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학생을 위하여 발표를 담당해야 한다. 나아가 집단토론의 결과를 간단한 기록 또는 보고서 형식으로 강사에게 제출하고 자료를 복사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집단토론과 발표를 위하여 필자의 수업에서 사용된 몇 가지 토론주제를 열거하면, ① 21C의 직업시장변화와 학교교육과정개발자의 전략 ② 다섯 가지 교육과정 설계모형의 종합과 비평 ③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에 비춰 본 한국의 학교교육 등이 있다.

이렇게 필자의 수업에서 집단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중요한 수업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강사중심의 설명식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간의 대화기회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간의 대화경험은 단순히 말을 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업에서의 학생의 참여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방관적인 입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수업주제의 탐구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변화되는 학습태도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준다. 둘째, 대화와 토론은 학생간의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훌륭한 수업방법이다. 친구간의 대화를 통하여 학생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며 자신이 생각한 것 이외의 다양하고 비예측적인 관점이 타인에게서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한 학습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립적 사고와 개인적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적인 참여와 비평을 통해 훌륭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직업세계 그리고 문제사태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협동하는 자세와 방법을 터득한다.

두 번째 수업방법은 생활자료를 교과내용과 관련시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를 심리적으로 준비시키는 전략이다. Ausubel의 선행조직자(advanced organizer)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교육학이론을 곧바로 제시하기 보다는 이론과 관련될 수 있는 학생의 생활사태 또는 경험을 생각의 자료(food for thought)로서 읽고 반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생활경험에 대한 읽기는 수업내용과 목표를 학생들의 현재수준에 맞추어 연결시킴으로써 수업의 준비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은 필자의 수업에서 총 4주가 할애되는 '역압, 이데올로기 그리고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에서 다루게 되는 네 가지 주제 중의 하나인 '페미니즘과 교육과정' 강의에서 학생에게 제시되는 생활자료의 목록이다.

- 소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 영화: 델마와 루이스, 그대안의 블루, 이조시대 여성수난사, 씨받이
- 텔레비전: 인기있는 드라마
- 전기: 서진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 생활사분석: 학생의 어머니, 또는 여자형제에 대한 면담과 생활사 써 오기
- 통계자료: UNESCO 한국의 여성개발지수, 한국여성의 가정폭력실태
- 잡지: 중동의 여성, 세계 여성학대회 보고서
- 신문: 미국 여성결혼관의 변화, 한국에서의 여성휴연권을 위한 기두행진.
- 노래: Madonna의 여러 노래
- 일상생활: 여성의 걸음걸이와 공간사용,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세 번째 방법은 교사와 학생간의 컨퍼런스(teacher and student conference)이다. 컨퍼런스는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을 근거로 하여 제 3자가 개입하여 면담의 상황에서 그 결과물의 장점과 단점을 진단체 줌으로써 학습자가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기 조정·자기 조절 능력을 배양하도록 격려해 주는 수업방법이자

평가방법이다. 강사와 학생 개인이 과제에 대하여 긴밀하게 의논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학생을 한꺼번에 지도해야 하는 강사중심의 수업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개별화 교수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의 수업에서는 1회가 할애되는 수업방법으로서 컨퍼런스는 기말 과제로서 학생이 프로젝트연구를 선택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한다. 실행 절차는 먼저 강사가 학급전체의 학생에게 2주나 3주전에 컨퍼런스 실시계획을 공고한 다음 각 학생들에게 약 5분에 해당하는 시간 계획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3학점 수업인 경우 약 3시간이기 때문에 30명의 학생인 경우에 최소한 약 5분씩 면담이 실시된다.

컨퍼런스의 주요한 목적은 학생이 선택한 기말과제의 진행상황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은 지금까지 실행한 기말과제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의문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퍼런스가 시작되면 학생은 자신이 해 왔던 연구내용을 강사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내용, 의문시하였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강사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상의한다. 이 과정에서 강사는 주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간략한 비평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학생의 과제가 부적절하거나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경우 주제를 변경하거나 연구의 범위를 제한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해 준다. 컨퍼런스를 통한 학생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학생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은 복잡한 차원에서의 만족감과 의미를 느낀다. 학생의 컨퍼런스가 끝나서 연구실을 나가게 되면 강사는 출석부에 학생의 컨퍼런스의 수행능력을 기록한다.

컨퍼런스는 학생이 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구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첫째, 주어진 목표에 학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과정에서 학생의 진보와 발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학생이 교과와 목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평가가 아무런 피드백 없이 종료되는 것과는 달리 학생의 발달과 진보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학생마다 과제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각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과제수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진도를 상의할 수 있다. 셋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학생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강사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네 번째 수업방법은 친구간의 컨퍼런스(student and student conference)이다. 친구간의 컨퍼런스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과제를 비평하고 조언해 주는 수업활동으로서 학생을 수업에 진취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과 수업』에서는 소규모 보고서, 또는 반성적 글쓰기가 과제로 제시된 경우에 실시하는데 한 학기 수업 중에서 1회 또는 2회를 할애한다. 적용되는 상황은 학생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신이 쓴 보고서 내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참여한다. 필자의 수업의 경우 4~5명의 학생을 한 조로 구성하여 친구간의 컨퍼런스를 실행한다. 그리고 읽기시간을 할애하여 친구의 보고서를 읽고서 복사본에 자신의 생각과 비평을 적어 나간다. 읽기시간이 끝나면 순서대로 친구의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비평하는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이 때 강사는 학생이 평가해야 할 준거로서 문법, 문장구조, 어휘의 선택, 논리적 전개, 인상적인 서론, 창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컨퍼런스가 끝나면 학생은 평가받은 내용을 참고삼아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하며 새롭게 써진 보고서를 강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학생은 교치기 전의 보고서, 교치 후의 보고서, 그리고 컨퍼런스의 경험에 대한 간단한 소감문을 함께 제출한다.

필자의 관찰에 비춰 볼 때, 친구간의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자의 수업태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첫째, 동년배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친구의 과제를 읽고

서 감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낀다. 교실에서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교사중심의 전통적인 전제적인 학습분위기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가 허용됨으로써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된다. 한국의 유교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은 강사에게 하기 힘든 대화를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둘째, 타인의 과제를 읽고서 비평하는 경험은 자신이 제작한 과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타산 지식의 교훈이 이 상황에 적용된다고 하겠다. 셋째, 그러한 비평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과제를 보다 수준 높게 고양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일어난다.

4. 『교육과정과 수업』에서의 평가방법

지금까지 필자의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의 수업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 중에서 기말고사과제에 적용된 평가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의 수업의 여섯 번째 원리는 전통적인 지필검사 대신에 대안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수업』 역시 지필검사가 아닌 다른 평가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1999년 1학기에 개발하여 실행한 루브릭(rubric)이 사용된 '반성적 학습일지 쓰기(reflective journal writing)'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반성적 학습일지 쓰기방법은 총 15주에 다루어진 수업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획하고 각 주제에 대하여 학생이 학습한 내용, 생각한 질문, 그리고 심화로 공부한 내용을 일기의 형식으로 써 내려가는 글쓰기방법을 말한다. 학생들은 각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비평을 진솔하게 써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글을 쓰는 형식은 강사가

특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글을 써 내려가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이 자유스럽게 글을 적어가면 된다. 친구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없이 창의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분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으며 매주의 수업에 대한 감상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면서 계속 써 내려가다 총 15주 강의가 끝나게 되면 출력하여 강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수업이 끝난 해당일에 가장 학생의 기억이 유효하고 신선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루어 일지를 쓰지 말고 느낌과 비평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기 전에 글을 쓰도록 조언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학습일지는 총 13~1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A4용지로 30장에서 60장까지 다양하다.

학생의 학습일지가 제출되면 강사는 학습일지를 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평가의 방법은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루브릭을 개발하여 학습일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루브릭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루브릭은 수행평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평가개념으로서 학생의 수행능력을 서술적으로 진술해 놓은 평가계획을 의미한다. 이 루브릭에는 평가될 평가영역과 함께 각 영역의 수준에 따른 수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지필검사에서 학생이 획득하는 점수가 학생의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반면,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잘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루브릭은 학생에게 수행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표 1> <표 2> 두 가지 형식의 루브릭이 현재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루브릭이다. 현재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루브릭의 왼쪽 영역에 나와있는 것처럼 학생의 평가는 ① 내용에 관한 지식 ② 글쓰기 ③ 창의적 관점 ④ 끝마

침의 정도 ⑤ 자기반성 등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각 영역에서의 학생의 수행의 결과가 점수화된다. 기말고사의 과제점수가 총 60점이기 때문에 한 영역당 부여되는 점수는 12점이다. 아울러 각 영역은 네 단계로 구분되어 학생의 수행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최고단계는 4에 최저단계는 1에 해당한다. 영역 당 12점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에 3점이 할애된다. 단계 4는 전문적 수준으로, 단계 1은 기초수준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한 영역에서 4단계를 획득한 학생은 4×3점=12점을 획득하게 되며 1단계를 부여받은 학생은 1×3점=3점을 획득하게 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의 대학수업을 지도하는 여섯 가지 원리, 그리고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업

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필자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와 관련하여 전공 지식에 대한 연마와 함께 전통적인 학교수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① 권위주의적·비민주주의적 대화양식 ② 수동적인 학습태도 ③ 사고의 정형화 ④ 강사와 학생간의 약한 공감대 ⑤ 학습에서의 심리적 긴장상태 ⑥ 경쟁적인 인간관계와 같은 수업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필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끝으로 이러한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을 실행하면서 관찰자로서 느꼈던 몇 가지 논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수업의 방향, 목적,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지필검사에서 요구되었던 학습태도나 능력과는 다른 형식의 수행과 수업참여가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학생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둘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표 1〉 진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루브릭 I

평가영역	단 계				점 수
	4	3	2	1	
내용에 관한 지식	각 주제에 대한 이론가의 심층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음			거의 없다	12
글 쓰 기	구두법 설득, 서론, 논리성, 띄어쓰기, 참고문헌 인용				12
창의적 관점	강사 그리고 기존 이론가가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나 해석을 제기하였음				12
끝마침의 정도	15주 동안에 다루어진 주제가 모두 포함됨				12
자 기 반 성	나의 관점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가? 일상생활, 교육자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련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드러났는가?				12


총 점 : 60 점 획득점수 : 점

〈표 2〉 진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루브릭 II

평가영역	설 명	
내용에 관한 지식	각 주제에 대한 이론가의 심층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음	① 뛰어난 능력을 보임 ② 높은 능력을 보임 ③ 만족스러움 ④ 만족스럽지 못함
글 쓰 기	구두법 설득, 서론, 논리성, 띄어쓰기, 참고문헌 인용	
창의적 관점	강사 그리고 기존 이론가가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나 해석을 제기하였음	
끝마침의 정도	15주 동안에 다루어진 주제가 모두 포함됨	
자 기 반 성	나의 관점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가? 일상생활, 교육자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련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드러났는가?	

총 점 : 60 점 획득점수 : 점

이러한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수업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을 위한 강사의 세심한 계획, 수업분위기 조성 그리고 참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대안적 평가방법이 강사에게 상당한 시간의 할애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방법이 학생의 교육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 근본적인 의도가 선발과 분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달과 진보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실대화와 토론, 그리고 자유스러운 학생의 사고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강사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강사는 평등한 상호작용의 문화를 양산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원칙(자유스러운 복장, 유머의 사용, 존칭어의 사용, 실수의 허용, 다양한 관점의 수용 등)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김영천

한양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The Ohio State University) 사범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질적연구방법론, 질적평가를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진주교대 교육학과 전임강사로서 『한국 초등학교의 수행평가 도구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저서 『네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은 1997년 문화체육부에 의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